

다음 글은 미국의 시사잡지 「포브스」(Forbes) 91년도 11월호에 게재된 그린피스 특집 기사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포브스」지는 말콤 포브스가 창간한 것으로 「포춘」(Fortune)지와 함께 세계적인 시사저널로 알려져 있다.

「포브스」지는 『결코 평화스럽지 않은 녹색평화(그린피스)』라는 특집을 통해 신화처럼 배일에 쌓인 그린피스의 내부 갈등과 논리의 허구성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놓았다.



지난 4월 12일(수) 한국을 찾아와 12일동안의 반핵활동 등을 벌이기 위해 동해안 3陟항에 정박중인 그린피스의 기함 「MV그린피스」호

평화스럽지 못한 「그린피스」

레슬리 스펜서(Leslie Spencer) 저술

실상은 무엇인가?

고래를 구하기 위해 고속 고무보트를 타고 거칠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것이 그린피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막대한 자금과 뛰어난 재간으로 언론과 국민을 우롱하면서 겉으로는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것이 그린피스의 실상이다.

“데이빗 맥타가트(David McTaggart) : 그린피스 창시자의 성공비결을 알게 되면 그린피스의 성공 비결을 알 수 있다.”고 저술자는 적고 있다.

또한 저술자는 이어서 “무엇이 진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 사태가 달라지는 법이다. 그린피스가 신화를 창조하는 도

구처럼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렇듯 그린피스에 대하여 신랄한 표현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과격한 환경운동에 분개하고 있는 일부 우익주의자들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그린피스의 공동 창설자중 한 사람이었으며 현재는 그린피스와 경쟁적 상태에 있는 생태 환경단체 「바다의 목자 협회」(The Sea Shepherd Society)의 대표자인 폴 왓슨(Paul

Watson)의 주장이다.

1977년에 그린피스를 떠난 왓슨은 히피족 부랑자 단체였던 그린피스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회원수 5백만, 24개 국가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환경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왓슨은 그린피스 성공의 주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린피스의 교묘한 신화 창조 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묘하게 관리되는 대기업

59세의 나이로 12년간의 그린피스 통치를 종식하고 최근 떠났지만 아직도 종신 명예회원으로 있는 데이빗 맥타가트 - 그가 그린피스를 통치했을 당시에는 90년도만 해도 1년 수입이 무려 1억 5천 7백만불(약 1천 3백억 원)이었다.

그린피스는 실로 교묘하게 관리되는 대기업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직접우편제도(Direct Mail System)를 탁월하게 운영했고 또 이미지 조작기술을 우수하게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직접우편제도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부터도 직접 기부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함) 한편 만약 일반 기업이라면 즉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각종 로비 방법도 거리낌없이 사용했다.

그런데 맥타가트는 영향력 있는 다국적 기업을 원수처럼 간주하여 비난

해왔으나 자기는 실제로 그린피스를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장사속을 챙겼던 것이다.

그린피스는 신화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탁월했다.

정유공장의 높은 굴뚝에 기어 올라가 플래카드를 길게 아래로 걸어 놓거나 고속 고무보트를 타고서 고래잡이 작살 사이를 곡예하듯 쏜살같이 달리는 모습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일반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 이미지의 그림자 속에는 현금이란 미명아래 돈을 거두어 들이는 또 하나의 검은 모습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린피스 미국지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독일지부는 90년에 3천6백만불(약 28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린피스의 독일지부의 회원은 꽤 많아 70만명 이라고 한다. 이들중 32만명은 년회비 50마르크(약 2만원)를 각자 개인 은행구좌에서 자동결제 되도록 허락한 실정이다.

그러한 그린피스의 현재 내부사정은 결코 평화스럽지만은 않다.

신화적인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91년 봄부터 독일에서는 수100만 「마르크」의 기부금이 공해방지 활동에 사용되는 대신 그린피스의 비밀구좌로 사라져 들어가는 것을 폭로하는 출판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린피스는 91년 9월 2일 암스텔담의 국제 본부에서 맥타가트가 12년간

의 의장직을 마치고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자체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46세의 헬싱키 출신 인권변호사 마티 우오리(Matti Wuori)가 후임으로 의장이 되었다.

반면 맥타가트는 명예의장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현장에서 떠난 맥타가트는 옛소련의 환경보전을 돕는데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린피스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 시점이 흥미롭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손상된 이미지를 씻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오리」는 「청소부」(清掃夫) 역할을 하기 위해 그린피스에 영입(迎入)되었다는 것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설득력 있는 이유이다.

신화적 이미지 조작

성자에 가까운 인물로 인식되었던 신화적 인물 맥타가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맥타가트란 인물은 이미지 조작에 대단히 능숙한 인물로서 그것은 그의 전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맥타가트에 대한 이야기는 1989년에 출판된 『그린피스 이야기』(The greenpeace Story),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신문잡지가 상세히 취재하여 몇년동안 자세히 게재된 바 있다.

『그린피스 이야기』라는 책에는 한

때 부동산 업자로 날렸던 맥타가트가 밝은 빛을 보고 나서 지구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어쨌든 그 책은 그런 식으로 환영을 쫓는 듯한 신화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맥타가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부동산업에 실패하여, 돈을 기탁했던 사람들, 특히 친척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사업이 실패로 끝나기도 전에 잠적해 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맥타가트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 중의 하나인 그의 세번째 장모 게르트루드 허버티(Gertrude Huberty)부인은 딸 때문에 사랑하는 사위이었던 그를 악질적인 업자로 기억하고 있다.

허버티는 어느날 맥타가트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든지”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했다.

맥타가트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 중의 하나는 바로 그린피스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

당시 맥타가트는 그린피스 유럽지부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었다. 특히 프랑스의 핵실험에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요원들에게서 구타당했던 것으로 널리 이름 나 있었다.

맥타가트는 캐나다 출신이다. 마침 그 당시 캐나다의 「그린피스」 밴쿠버 지부 창설자들이 그린피스 명칭 사용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맥타가트와 다른 공동 창설자와 밴쿠버 지부 의장인 페트릭 무어 간의 드러난 싸움이라고 이야기 한다.

「무어」는 캐나다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미국과 유럽지부는 완전히 맥타가트를 지지했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 때문에 맥타가트(McTaggart)는 1980년 「그린피스」의 국제의장(國際議長)으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무어는 캐나다 지부장으로 남게 되었다.

그린피스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신화적인 인물인 맥타가트에게 충성을 맹세한 수백만의 회원들은 이 같은 동족상잔격의 싸움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린피스는 대기업을 공격하면서 대기업을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자가 얼굴을 내보이지 않거나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고 대단히 꾸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그린피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을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줄곧 받아오고 있고 과중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파헤치기를 좋아하는 언론에 폭로되고 있다.

또한 주주들로부터 면밀한 감시를 받아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언론은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에 대하여는 별로 까다롭게 굴지 않고 있다. 언론은 그린피스를 위하고 있으며 여러가

지로 감싸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피스의 기관지인 프레스 그린피스(Press Greenpeace)는 맥타가트 의장의 연봉이 6만달러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은 무엇인지 전혀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기업이 외부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수당등을 공개토록 요구받아도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결되어야만 공개하는 관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피스코도 그런 관행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와 독일 지부 같은 곳은 자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권과 자금의 대부분은 국제본부에 속하여 있는 실정이다.

맥타가트는 이 자금을 이탈리아의 페루지아에 있는 그의 올리브 농장(農場)이나 로마의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관리해 왔다.

그린피스 국제본부가 많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각 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린피스 명칭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개 국가 지부에서 이런 명목으로 송금되어 있는 돈을 암스텔담 국제본부가 관리하고 있다.

명칭사용료는 각 지부의 순수 모금액중 24%로 정해 놓았다. 더구나 어떤 지부도 국제본부의 승인 없이는 아무런 캠페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모든 실권이 암스텔담 본부

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거칠고 잔인한 권력행사

그린피스는 이러한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는가? 한마디로 거칠고 어찌면 잔인하게 행사했다.

그린피스 내에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986년 그린피스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 압력을 행사하여 해양생물학자인 리처드 램버스텐(Richard Lam-bersten)을 해고토록 했다.

그가 해고 된 것은 그가 고래에서 피부조직 샘플을 떼어내야만 가능했던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그 연구가 과학적인 유용성이 없다고 결정하고는 램버스텐 교수가 상업적 포경업자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늘어 놓았다.

현재 「우즈 호울 해양연구소」(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에 근무하고 있는 램버스텐 교수는 자기의 연구가 고래의 질병을 밝혀 내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램버스텐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린피스가 자기를 플로리다 대학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데모꾼들을 트럭에 실어 대학에 데려와 축구장에 「플로리다 대학은 고래를 죽이지 말라!」는 깃발을 세워놓는 작전을 사용했다고 털어 놓았다.

국제협회도 조종

고래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이 고속 고래보트에서 포경선의 작살을 피해 이리저리 달리면서 시위하는 그린피스 핵심조직원들을 열심히 추적하여 보도하고 있는 한편으로 맥타가트는 국제포경협회의 목을 죄는 일을 사주하고 있었다.

국제포경협회는 1946년 고래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난항끝에 포경업 국가간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성된 기구이다.

이 협회가 결성됨으로써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는 워니 워이해도 고래고기를 즐기는 일본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옛소련, 노르웨이 등이다.

이 협회에서 년회비 2만~3만달러를 내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대표단 파견 경비를 낼 수 있는 나라면 어느 나라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린피스의 전임 해양포유동물 문제 고문인 프란치스코 팔라치오(Francisco Palacio)는 맥타가트와 함께 국제포경협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그린피스의 포경금지 주장을 협회가 수용토록 하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린피스와 같은 고래 구제론자들은 「안티구아」나 「산타 루치아」 같은 일부 신흥 약소국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런 작은 나라들이 국제포경협회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우선 미국무성에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린피스는 자기 자신은 물론, 그린피스 동조자들을 국제포경협회의 전문가, 또는 위원으로서 회원국을 대표할 수 있게 했다.

임무를 부여한 셈이었다. 예를 몇가지 들면 마이아미에 살고 있는 콜롬비아 시민 팔라치오(Palacio)는 「그린피스」로부터 신생 「산타 루치아」 대표위원의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팔라치오의 친구로서 변호사인 리처드 바론(Richard Baron)은 「안티구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임무를 부여 받았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맥타가트의 친구로서 바하마의 낫소에 살고 있는 폴 구앙(Paul Gouin)은 파나마를 대표하는위원의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견 너무 심한 예이다.

팔라치오가 밝힌바에 의하면 이처럼 그린피스가 위촉한 위원들이 협회 회의에 참가할때에는 매일 3백달러의 수당과 기타 숙식비 등 경비일체가 지급되는 10일간의 여행을 해마다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팔라치오는 미국 정부 설득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 들일때 소요되는 경비도 그린피스에서 전액 부담해 준다고 털어 놓았다.

팔라치오는 또한 1978년부터 1982

년 사이에 상업포경 유예조치 시행에 필요한 4분의 3 회원국을 확보키 위해 그린피스가 적어도 6개 신규 회원국을 추가로 협회에 가입시키는 작전을 짜서 수행했음도 밝혔다.

이 유예조치는 이런 노력때문인지 결국 1982년에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그린피스는 그린피스 협력 회원국을 국제포경협회 회원국으로 신규가입 시키기 위해 가입비를 포함하여 수100만달러의 경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팔라치오는 "신규회원 가입에 따른 경비만해도 연간 약 15만달러이나 되었으며 또 그런 과정에서 수시로 뇌물도 오고갔다."고 말했다.

30대의 젊은이인 프랑스 사람 「구양」은 미국의 마이애미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생활 자원 연구소」(The Sea Life Resources Institute) 재단을 통해 그린피스에 자금을 제공한 후원자였다.

구양이란 사람은 그런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결론적으로 구양은 고래 무역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었다고 말했다.

고래 살리기 캠페인과 같은 그린피스의 활동은 간혹 일반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것처럼 보이기 일쑤이다.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그런 캠페인은 실은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기금을 모집하는 조직망부터 구축한다. 그린피스는 조직망을 통해

정부관리로부터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는 이른바 업자들, 그린피스의 공해 추방 캠페인 목표에 찬동하는 기업의 근로자들, 그리고 트럭운전자 등등 잡다한 계층으로부터 기금을 거두어 들고 있다.

그린피스의 어떤 간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의 정보수집 활동중에는 모금을 위한 조직 비밀작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하여 그린피스 신임 의장이었던 마티 우오리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린피스」가 자체 조직망을 통해 자립경제 단체로 변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의 동조를 받고 있는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각국의 정부가 자기 나라의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시행되도록 강요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환경보호법을 충실하게 시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린피스는 자신들이 판사와 배심원이 되어 일을 처리해 버린다.

이런 사실을 수많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린피스에 동정심을 품고 있는 언론이 그런 사실은 자세히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린피스」가 가장 대규모로 기금을 모집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 때문이었다.

1985년 프랑스 정부요원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정박중인 그린피스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를 폭파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배가 프랑스의 핵실험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핵실험 장소까지 배를 타고 와서 해상 시위를 하므로)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배가 폭파되었을 때 배에 타고 있던 그린피스 조직의 한 사진사 페르난도 페레이라가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린피스는 단번에 순교자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린피스는 이 순교자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을 즉각 펼쳤다. 그 결과 2년만에 그린피스 미국지부가 거두어 들인 돈은 종전보다 3배나 증가한 2천5백만달러이었다.

그러나 이 순교자 사건은 페레이라가 극렬 테러분자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혐의 때문에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과 덴마크 정보당국은 페레이라가 국제 테러단체인 「6월 2일 운동」(Second of June Movement) 정치전선의 연락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서부 「유럽」지역에서 반핵 미사일 시위를 꾸미고 있는 소련 KGB의 연락원이라는 용의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

다. 페레이라가 테러단체와 관련 있다는 얘기는 프랑스 외교안보 당국이 오클랜드 폭파사건에서 발췌하려는 조작극이라고 내세웠다.

오클랜드 폭파사건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을지 모른다. 경찰이 혐의 내용을 주장했지만 도무지 언론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그린피스」는 이 사건으로 막대한 출판물 이득을 차지하게 되었다.

불리하면 법정투쟁

또 한가지 그린피스 활동의 특징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출판물이 나오면 이를 법정으로 끌고가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작년만해도 그린피스는 자기들이 원치 않는 기사를 게재한 독일 잡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남을 비방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린피스를 비판할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이슬랜드 레이카비크에 살고 있는 영화제작자 마그누스 구드문드슨(Magnus Cudmundsson)은 이런 실정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구드문드슨이 1989년에 제작한 「극지대에서의 생존」(Survival in the High North)라는 영화는 북극지방에서 수렵생활을 하는 주민과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주의자들이 벌인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린피스와 이른바 동물보호주의자

들은 바다표범 가죽이 「유럽」지역에 수입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이슬랜드, 그린랜드, 파로(Faroe)섬 등에서 바다표범 사냥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그린피스의 캠페인 때문에 사냥을 못하게 되자 복지시설에 생계를 의탁하는 주민이 급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극지대에서의 생존」이란 영화는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암울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구드문드슨의 영화는 일찍이 1986년 덴마크의 저명한 언론인으로 언론상까지 받은 바 있는 레이프 블라에델(Leif Blaedel)의 주장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블라에델은 그린피스 선전영화중에 그린피스가 돈으로 매수한 가짜 동물 학대자들이 나오는 것이 있으므로 그런 영화는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이다.

즉, 그린피스가 만든 「굿바이 죠이」(Goodbye Joey)라는 영화에는 캥거루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은 그 사냥꾼들이라는 것이 그린피스가 매수한 가짜 사냥꾼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호주의 디란반디 법원의 재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짜 사냥꾼들이 캥거루를 학대한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법원

기록에는 그 영화제작자가 영화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음을 밝혔다고 되어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후 블라에델은 그린피스에게 호주 지방법원의 재판 기록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린피스는 블라에델이 저명 언론인이므로 재판기록을 숨길 수도 없으므로 보내주었다.

그로부터 3년후 그린피스 덴마크지부는 이 영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배포를 중지했다. 그린피스의 언론담당 피터 디크스트라(Peter Dykstra)는 그린피스가 이 영화의 「도덕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배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린피스는 자기들 활동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문제로 삼지 않는 한, 즉 언론이 문제로 삼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그린피스는 골치덩어리 구드문드슨의 입을 막아 버리려고 구드문드슨의 주장이 상당 부분 허구적이라고 하면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그린피스로서는 한 사람이라도 골치꺼리가 있으면 그를 위해 돈이 얼마나 들든지, 노력이 얼마나 들든지 관계하지 않는다.) 구드문드슨은 지금까지 법정 소송 경비를 약 4만불을 사용했다.

모든 수단방법을 정당화

그린피스는 목적만 그럴듯 하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과도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 기업과 자유시장 원리안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린피스 미국지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피터 바후스(Peter Bahouth)의 말은 그린피스의 진짜 면모를 표현해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바후스는 “나는 시장 접근 방식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독성물질이나 오염물질을 일용품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하여 신경을 쓰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바 있다.

독일의 환경전문가인 요셉 후버(Joseph Huber)의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후버는 “그린피스는 자기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단 한가지, 그들은 산업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지구가 파괴될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하여 반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주의에는 일종의 신낭만주의와 무질서주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주의에는 반시장 원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환경주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몬타나 소재 「정치경제연구센터」(Political Economy Research Center)의 보즈만(Bozeman)같은 환경운동가는 아무리

환경 제일주의 운동을 추진한다고 해도 기업의 재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방호자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주류파들도 시장활동의 과정에서, 즉 일상생활을 위해 발생되는 오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타가트 통치하의 그린피스는 자유시장 원칙에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공해는 최악이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환경오염 유발업소는 세금부과 대신 무조건 공장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마키아벨리즘과 신화주의를 혼합

그린피스 공동창설자중의 한사람이었던 로버트 헌터(Robert Hunter)는 어떤 의미에서 그린피스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현재 토론토에서 환경영화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1979년 『무지개 전사(戰士)』(Warriors of The Rainbow)라는 일종의 그린피스 역사책을 집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즘의 신화주의는 똑같이 그린피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사상, 즉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악랄한 권모술수를 써도 무방하다는 마키아벨리즘의 신화주의는 둘다 똑같이 어떤 때는 종교적 광신적인 면을, 또 어떤 때는 야만에 가까운 잔인한 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패함과 위대함은 모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며 두 경우 모두 상당한 값도 치루는 것이다.

냉혹한 잔인성과 종교적 열성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이 두가지 특성이 절대론자들의 확신과 결부될 때에는 더욱 그러한 법이다.

그린피스는 자체적으로 독성폐기물,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연구는 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연구자금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린피스는 자기들의 역할이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환경을 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의 목적은 폐기물을 발생하는 산업공정을 없애자는 것이며 폐기물의 안전처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보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린피스의 목적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얼마전 그린피스 미국지부는 목재산업의 경제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산림전문가 랜달 오툴(Randal O'Toole)에게 의뢰한 바 있다. 오툴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산림조합에 주는 보조금을 중지하고 반면 조합이 벌목지역에 대한 재식목 경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벌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이 연구의 결론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그린피스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린피스로서는 재식목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싫었던 것

이다. 무조건 벌목기업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중에 이들은 그린피스 고위층이 자기의 결론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비폭력주의를 표방한 폭력주의

그린피스의 모금관련 인쇄물을 보면 그린피스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비폭력주의, 케이교도의 증인입증(bearing witness)주의에 무척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디는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강력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피스가 간디 사상에 전념하고 있음은 일단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가 지원하고 있는 환경테러단체 「어스 퍼스트」(Earth First)를 예로 들어보자.

이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클 로세유(Michael Roselle)는 실제로 그린피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방법은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어스 퍼스트」 단체는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박아 넣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들이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제재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하자면 제재소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에 「어스 퍼스트」 회원들이 연루된 자동차 폭발사고가 있었다. 그때 두명의 「어스 퍼스트」 회원이 자동

차 폭파 혐의로 체포된바 있다. 그린피스는 폭파범의 보석금과 사실탐정 경비까지 지불키 위해 다른 환경단체들과 동맹을 맺었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로세유는 「어스 퍼스트」야 말로 환경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이 시도한 살인행각 때문에 죄없이 피해 받고 있다는 억지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어쨌든 「어스 퍼스트」 회원들은 잘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피스라는 이름은 평화스럽고 착하기만 한것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이름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의 가면을 쓰고서 자본주의를 경멸해 왔으며 폭력을 감행하여 왔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린피스 국제지부의 핵심간부인 수잔 조지(Susan George), 그리고 이름난 군사전문가 윌리엄 아킨(William Arkin)이 둘다 모두 악명 높은 좌익계열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함께 일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그린피스의 여러 가지 주장, 그린피스에 대한 외부의 다양한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린피스란 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제하는데 헌신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세계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거대폭력조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1990년 3, 4월호 「그린피

스」 잡지 사설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사설은 동유럽의 통제경제와 西歐를 횡행하던 「미숙한 자본주의」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사설은 사회주의 때문에 야기된 환경파괴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순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아야만 東·西의 두 경쟁적인 이데올로기는 겨우 구별된다.”라고….

비록 그린피스가 최근 동유럽에서 두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이미 육구가 충족된 서구에서 분명히 신봉자를 얻을지 모르지만 이 파렴치한 언설(言說)은 새로히 개방된 東유럽의 여러나라에서 거의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린피스의 신임 의장은 이 반자본주의적 열정을 억제하고 그린피스를 환경론의 주류로 이끌 수 있을까? 마티 우오리(Matti Wuori)는 그의 온건한 견해를 조직에 불어 넣는데 진지한 듯 하다. 그리고 그는 내부의 회계감사 기구를 만들려고 계획중이다.

그러나 그가 그린피스의 활동 가운데 가장 나쁜 성향(性向)을 교정하려 하는 限, 우오리(Wuori)는 그린피스 신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던 투사들의 명성을 손상시킬 위험에 처하게 된다.